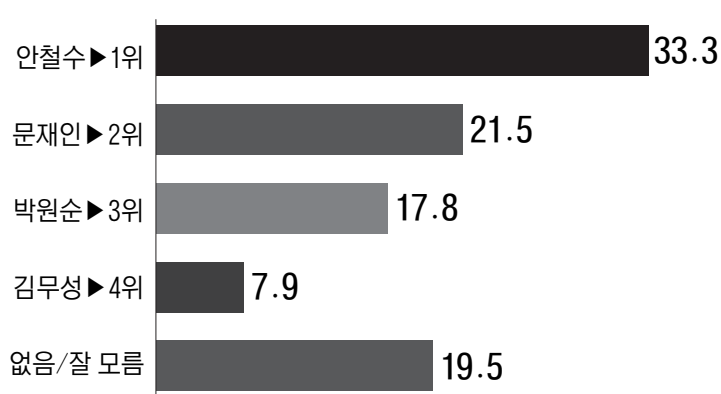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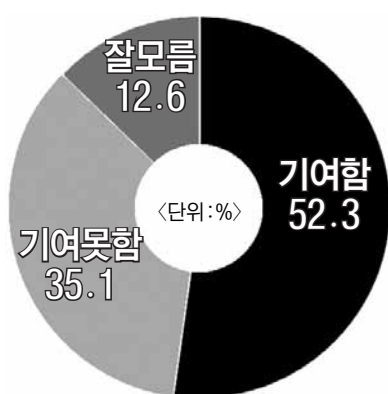


차기 대통령 적합도, 안철수 33% 1위…문재인·박원순 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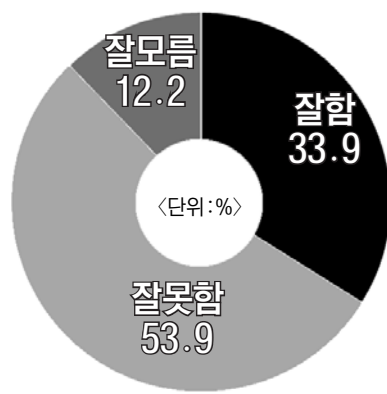
■ 차기 대통령 적합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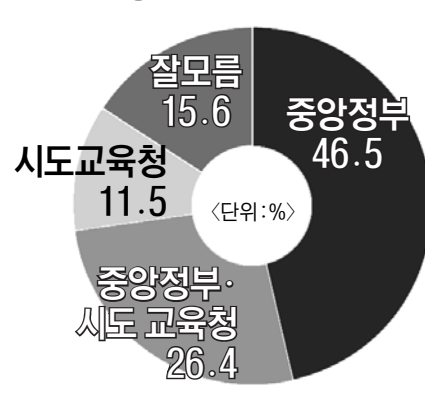
■ 문재인 사퇴로 패권주의 해소



■ 더민주 제10야당 역할 평가



■ 누리과정 예산 책임



신년 조사 비해 안철수 하락 문재인 상승

차기 대통령 적합도

安, 전남 동북권 제외 고른 지지
文, 20대 이하 31.7%로 1위 차지

차기대통령 적합도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가 33.3%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고 21.5%의 지지율을 얻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뒤를 이었다. 박원순 서울시장은 17.8%,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.9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지난해말 실시한 신년호 여론조사에서는 안 대표가 37.5%로 역시 1위, 박 시장이 22.4%로 2위, 문 전 대표는 17.3%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. 김 대표는 6.7%의 지지율을 보였다.

안 대표는 1위를 유지했지만 지지율이 4.2%포인트가 빠진 반면 문 전 대표는 지지율을 4.2%포인트

올리며 2위로 뛰어올랐다. 박 시장은 지지율이 4.6%포인트 빠지면서 3위로 밀려났다.

지역별로 안 대표는 전남 동북권(17.5%)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%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 문 전 대표는 전남 동북권에서 35.8%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으나 광주근교권에서는 8.4%의 지지율로 안 전 대표

를 1위를 차지했고 박 시장(21.7%)과 안 대표(16.8%)가 뒤를 이었다. 30대와 40대에서는 문 전 대표와 안 대표가 23.5%대 29.7%, 29.9%대 30.6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하며 경합을 했다. 50대에서는 안 대표(42.9%), 문 전 대표(15.5%), 박 시장(13.8%), 60대 이상에서는 안 대표(40.8%), 박 시장(16.6%), 문 전 대표(12.2%) 순으로 지지율을 얻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34% “잘하고 있다” 54% “잘 못하고 있다”

더민주 제10야당 역할

광주 광산구 긍정 평가 비율 높아
남성, 50~60대서 부정 평가 많아

‘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’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3.9%만이 ‘잘하고 있다’고 답한 반면 53.9%는 ‘잘못하고 있다’고 답했다.

구체적으로 ▲매우 잘하고 있다 10.8% ▲대체로 잘하고 있다 23.1% ▲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3.8% ▲매우 잘못하고 있다 20.1%였다.

지역별로 광주 동구(66.9%), 광주 근교권(66.3%), 전남 동북권(61.2%)은 잘못한다는 평가를 내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 광산구는 ‘44.2% 대 43.3%’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못한다는 평가보다

많아 눈길을 끌었다.

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42.3%, 40대 55.8%, 50대 60.1%, 60대 이상 62.1%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.

성별로는 남성에서는 ‘잘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30.1%,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응답은 63.0%였으나 여성은 ‘37.6% 대 44.9%’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후한 평가를 했다.

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‘68.6% 대 25.9%’로 ‘잘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응답보다 많은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(30.1% 대 55.8%)과 국민의당 지지층(19.5% 대 75.0%)에서는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더 많았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52% “기여할 것” 35% “기여하지 못할 것”

文 대표 사퇴, 패권주의 해소할까

50대 낙관·비관 전망 엇비슷

더민주 지지층 81% 기여 전망

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선대위, 비대위 구성에 따른 더민주의 통합과 특정 집단의 패권주의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’는 질문에 52.3%가 ‘기여할 것’이라고 답했다.

반면, 35.1%는 ‘기여하지 못할 것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. 12.6%는 ‘잘 모르겠다’고 답했다.

구체적으로 ‘크게 기여할 것’이라는 답변은 19.8%, ‘어느 정도 기여할 것’이란 답변은 32.5%, ‘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’이란 답변은 29.4%, ‘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’이란 답변은 5.5%였다.

지역별로는 전남 동북권(66.6%), 광주 광산구(56.

5%)와 서구(58.5%)에서 ‘기여할 것’이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 동구에서는 ‘기여할 것’(45.5%)이란 응답이 ‘기여하지 못할 것’(46.3%)이란 응답에 비해 오히려 적었다.

연령대별로는 50대만이 ‘기여할 것’(48.1%)이란 응답이 ‘기여하지 못할 것’(43.5%)이란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.

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‘81.5%대 11.4%’로 ‘기여할 것’이란 응답이 많았지만 새누리당 지지층(39.4%대 51.1%)과 국민의당 지지층(45.0%대49.4%)에서는 ‘기여하지 못할 것’이란 응답이 더 많았다.

또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(81.3%대 10.0 %)과 박원순 시장 지지층(61.3%대 32.1%)에서는 ‘기여할 것’으로 전망한 반면 안철수 의원 지지층에서는 (44.4%대 49.1%)로 반대였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47% “중앙정부 책임” 11% “시·도교육청”

누리예산 갈등

40대, 60%·60대 이상, 38%

“중앙정부가 예산 부담해야”

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·전남지역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‘3~5세 아동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’는 질문에 대해 전체 답변자의 46.5%가 중앙정부를 꼽았다. 이어 26.4%는 중앙정부와 시·도교육청이 동시에 책임이 있다고 봤고, 11.5%는 시·도교육청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.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15.6%였다.

지역별로 전남에서는 43.6%, 광주에서는 50.5%

가 중앙정부 책임을 꼽았다. 특히 광주 동구에서는 60.3%가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반면 단지 5.7%만이 시도교육청 책임이라고 답했다.

연령별로 40대에서 가장 많은 60.4%가 중앙정부 책임을 꼽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38.0%만이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.

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22.9%가 중앙정부 책임을 꼽은 반면 37.4%는 시도교육청 책임이라고 답했다. 하지만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56.7%,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49.7%가 중앙정부 책임을 선택했다.

차기대통령 적합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꼽은 답변자의 17.5%는 중앙정부 책임을 꼽은 반면 45.1%가 시도교육청 책임을 택했다. 그러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의 64.1%가 중앙정부 책임,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지지자 48.9%가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여론조사 어떻게

성인남녀 1014명

유선 70% 무선 30%

자동응답조사 방식

‘광주일보 2016년 설특집 정치현안 여론조사’는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·전남 야권지형의 변화와 향후 총선 지지 정당 등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,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.

조사는 2월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 광주·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·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. 이중 유선 응답은 70%, 무선 응답은 30%였다.

조사표본 추출은 광주·전남 지역의 성, 연령별, 지역(구·군)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비례할당추출 후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, 유·무선 전화 임의전화걸기(RDD)방식을 활용했다.

선정된 표본은 광주 446명, 전남 568명이었으며, 통계보정은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치(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를 부여했다.
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내에 ±3.1%포인트이며, 응답률은 8.2%였다. /최권일기자 cki@



레이저백내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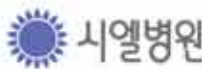
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. 3D OCT가 탑재된 펄스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◎ 수술 / 무통증 / 무봉합 /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.

1566-9988

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

진료내용 스마일 / 라식 / 라섹 / ICL / 백내장 / 녹내장 / 망막 / 눈성형 / 노안



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

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-증-68156호

아이소망



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체외수정시술 |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| 습관성 유산 • 종합건강검진센터

www.clwhivf.com | www.시엘병원.com ☎(062)368-1700